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1월 ~ 11월 음식점 매출액 및 식재료 구매액 변화

김상호, 신성용, 지정훈 | KREI 농식품시스템연구부

개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식품 소비정보 분석사업」을 수행 중임.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은 매월 국내 농식품 소비동향 및 현안/이슈를 분석하여 웹진을 발간해왔으며, 이번 호에서는 산업 소비동향 1(2020년 제5호)에서의 분석에 이어서 2020년 1월 ~ 2020년 11월까지의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분야 영향을 분석함.
- 음식점 매출액 분석은 네이버 데이터랩(Naver DataLab)에서 제공하는 비씨카드社 음식점 시·도별 업종별 매출액지수*,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2016~2018년 원자료 및 농림축산식품부 「2019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통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수행함.

*: BC카드 사용자가 매일 결제하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이며, 카드 사용금액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값임. 비씨카드 사용자들의 사용금액은 전체 카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26% 수준으로, 비씨카드社 담당자에 따르면 타 카드社 매출정보 및 한국은행, 여신협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트렌드 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함. 그럼에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카드사별로 시기, 지역,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종합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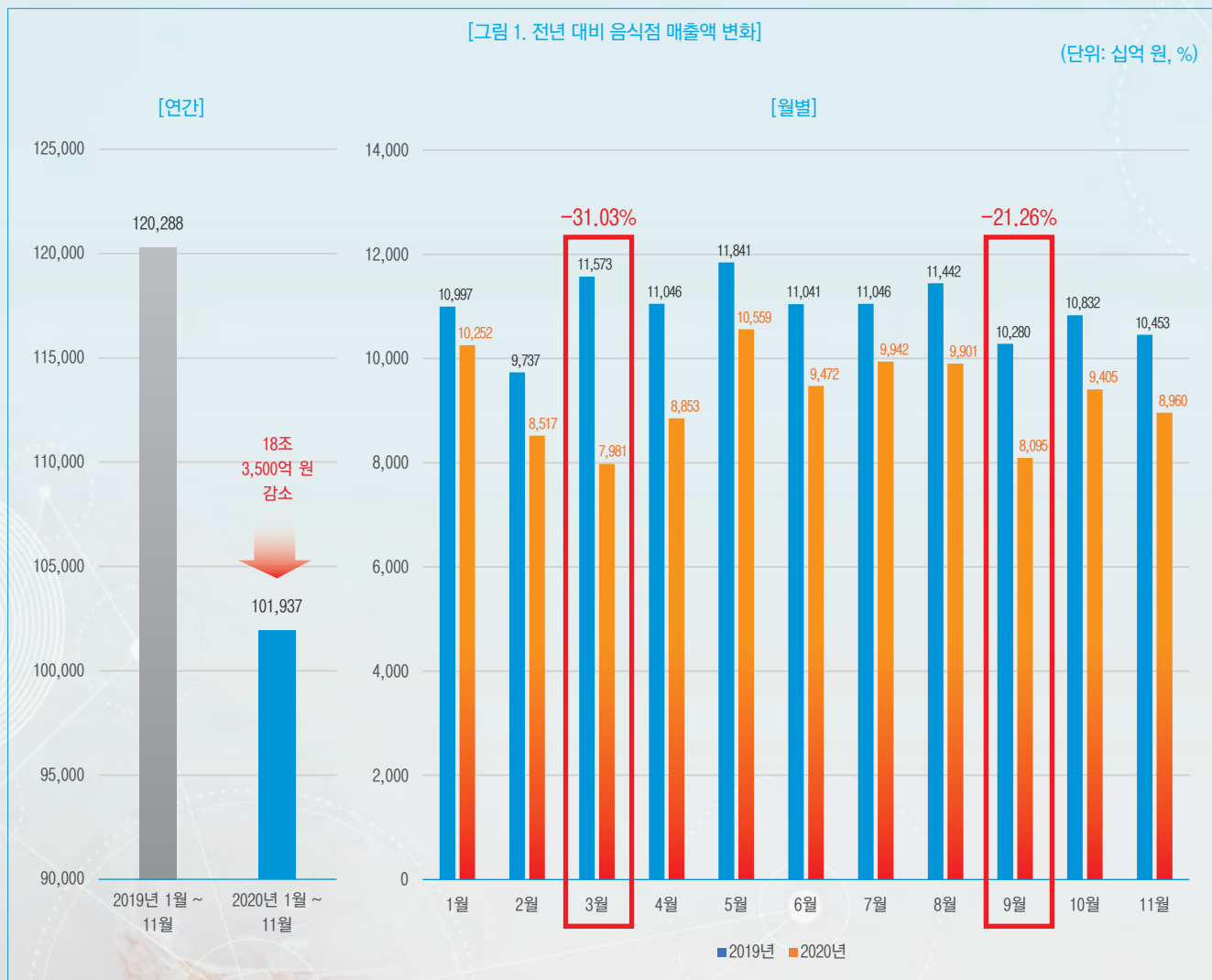
- 2020년 1월 ~ 11월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101조 9,3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3,500억 원 가량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시도별로 전년 대비 음식점업 매출액 변화율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를 도출해보면 대체적으로 음의 상관관계가 도출됨. 이에 따르면 1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국내 외식업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한식 계열 업종 및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점계열 업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추정됨.
- 육류, 가공식품, 채소의 구매 감소액이 클 것으로 추정되며, 외식업 및 원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 제조업체의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01.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매출액 변화 분석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대비 음식점 매출액 큰 폭으로 감소

- 매출액 추정 결과 2020년 1~11월 기간동안의 매출액은 101조 9,370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18조 3,500억 원 가량 감소한 금액임.
-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3월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31.03%, 광화문 발 감염사태의 영향이 컸던 9월의 매출액 감소율은 -21.26%로 다른 기간에 비해 높음.



(단위: 십억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2019년	10,997	9,737	11,573	11,046	11,841	11,041	11,046	11,442	10,280	10,832	10,453	120,288
2020년	10,252	8,517	7,981	8,853	10,559	9,472	9,942	9,901	8,095	9,405	8,960	101,937
전년 동기대비 변화율(%)	-6.78	-12.53	-31.03	-19.85	-10.83	-14.22	-10.00	-13.47	-21.26	-13.18	-14.28	-15.26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업 매출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매출액은 매출지수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

01.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매출액 변화 분석

음식점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은 대전과 대구

- 시도별 음식점 매출액 추정 결과 2020년 1~11월 기간동안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인 지역은 대전광역시 지역이었으며, 이외에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순으로 매출액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 시도별 · 월별 매출액 추정 결과 3~4월에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및 대구의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매출액 감소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았으나, 이후 낮은 감소율을 보임.
-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감소하는 역 상관관계를 보이나, 제주도와 대구는 예외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대구의 경우 지역 내 확진자 수와 음식점 매출액 간 상관계수는 -0.596이고, 나머지 지역의 확진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점이 다소 흥미로움. 이는 지난 2월과 3월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할 당시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경각심이 완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판단됨.*

*: 기사 참고: 박창렬, 2020. 12. 12. "이 악문 대구... 코로나 확진 전국 최소수준." 조선일보

[그림 2. 시도별 2020년 1월 ~ 11월 기간 음식점 매출액의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표1. 매출액 변화율과 국내 신규확진자 수 간 상관관계]

구분	상관관계
부산광역시	-0.861
충청북도	-0.827
서울특별시	-0.820
충청남도	-0.749
강원도	-0.680
울산광역시	-0.654
인천광역시	-0.621
광주광역시	-0.608
경기도	-0.588
전라남도	-0.578
경상남도	-0.571
경상북도	-0.456
전라북도	-0.245
대전광역시	-0.124
제주특별자치도	0.331
대구광역시	0.380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업 매출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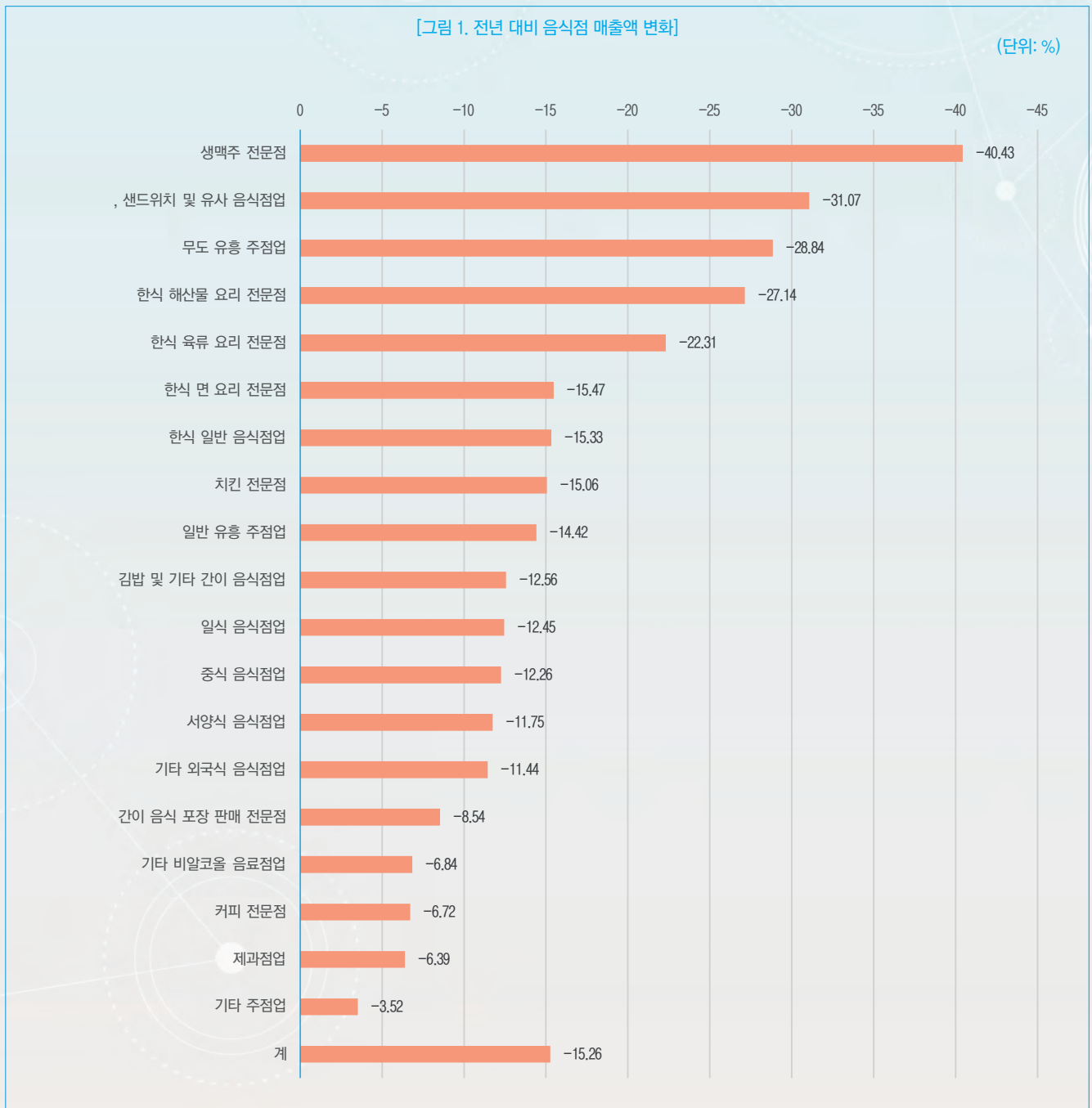
주1)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매출액은 매출지수의 부재로 제외

주2) 상관관계는 시도별 · 월별 전년 동기 대비 음식점 매출액 변화율과 전월의 확진자 수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임.

01. 코로나19로 인한 음식점 매출액 변화 분석

업종별 매출액 추정 결과 한식 계열 업종 및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주점 계열 업종의 피해가 큰 것으로 추정

- ‘생맥주 전문점’, ‘무도 유흥주점업’ 과 같은 주점업종과 한식 계열 업종의 피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됨.
- ‘생맥주 전문점’ 및 ‘무도 유흥주점업’ 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컸을 것으로 추측됨.
-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면요리 전문점’, ‘한식 일반 음식점업’ 등의 한식 계열 업종 또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큰 것으로 분석됨.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업 매출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매출액은 매출지수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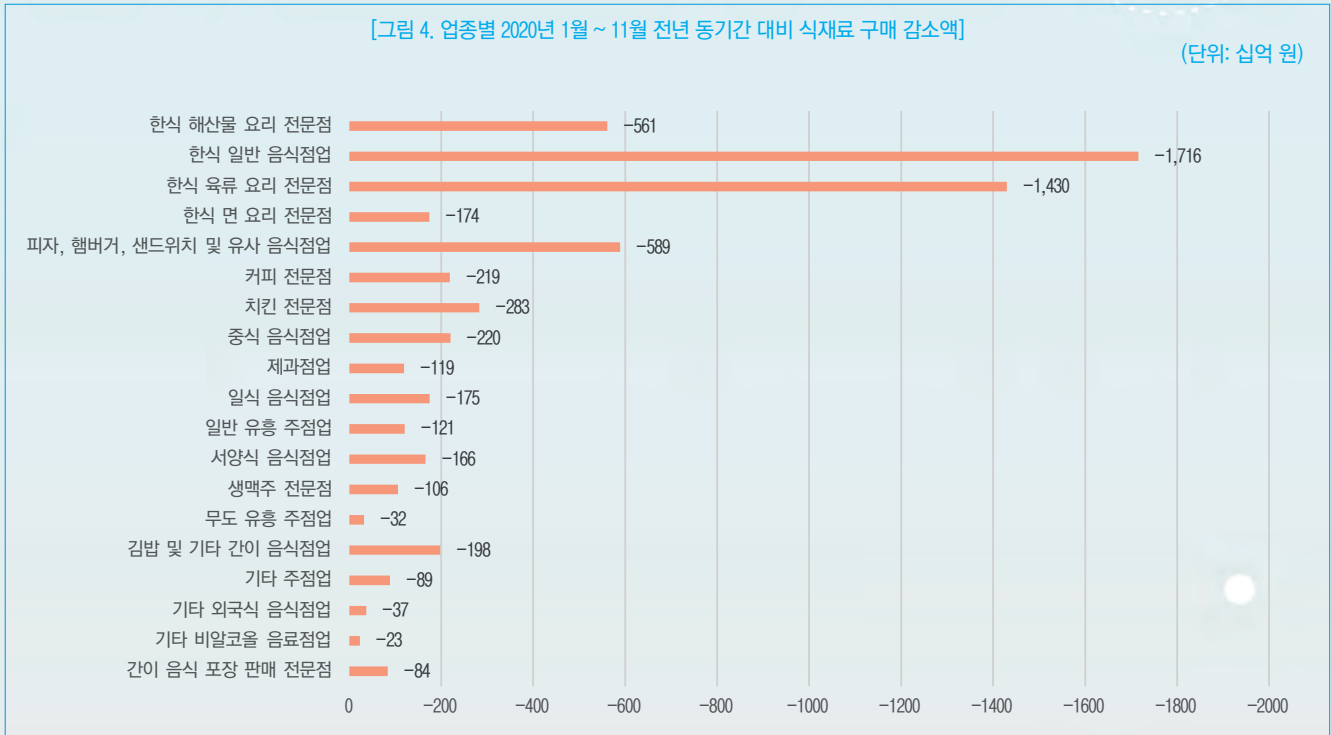
02. 음식점 식재료 구매 감소액 추정 결과

식재료 구매 감소액은 약 6조 3,409억, 이 중 한식 관련 업종에서의 구매 감소액이 큰 것으로 추정됨.

- 2020년 1~11월 기간동안의 업종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식재료 구매 감소액은 전년 동 기간에 비해 약 6조 3,409억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식재료 구매 감소액이 가장 큰 업종은 '한식 일반 음식점업(1조 7,160억 원 감소)' 과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1조 4,300억 원 감소)' 으로 두 업종에서 전체 농산물 구입 감소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업종별 2020년 1월 ~ 11월 전년 동기간 대비 식재료 구매 감소액]

(단위: 십억 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업 매출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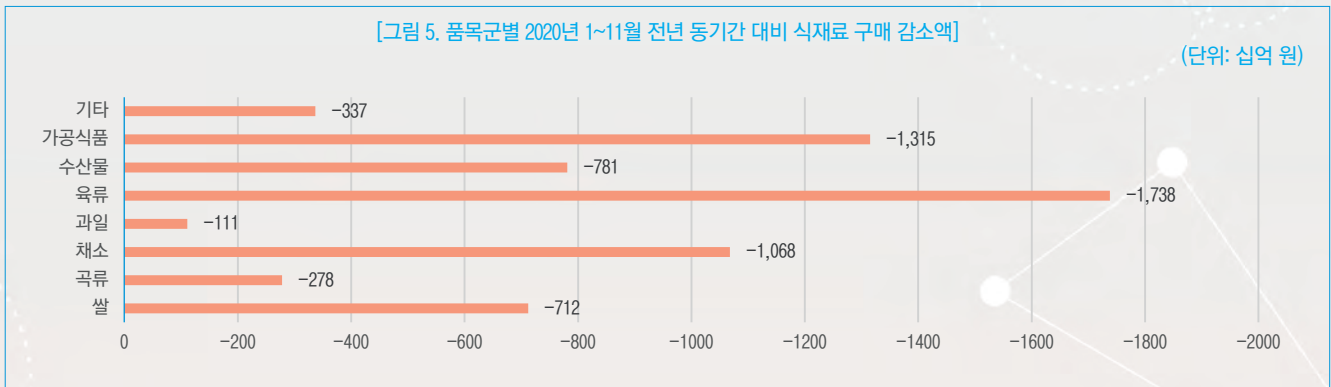
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매출액은 매출지수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

육류, 가공식품, 채소의 구매 감소액이 클 것으로 추정되며, 외식업 및 원물 생산자뿐만 아니라 일반 식품제조업체의 피해도 클 것으로 판단

-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군은 '육류(1조 7,384억 원 감소)', '가공식품(1조 3,146억 원 감소)' 및 '채소(1조 683억 원 감소)' 임.
- '가공식품' 식재료의 구매액 감소가 큰 만큼 농업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원물을 가공하여 음식점에 식재료로 납품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의 피해도 클 것으로 판단됨.

[그림 5. 품목군별 2020년 1~11월 전년 동기간 대비 식재료 구매 감소액]

(단위: 십억 원)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네이버 데이터랩 「음식점업 매출지수」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

주: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매출액은 매출지수의 부재로 분석에서 제외